

LG, '슈퍼스타트 데이'로 청년 혁신 스타트업 발굴·육성

41개 스타트업 핵심 기술 발표·전시
미래사업 ABC 분야 혁신기술도 선봬
1:1 비즈니스 미팅존, 120건 미팅 성사

LG가 대학가 '슈퍼 루키'를 육성해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LG는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스타트업 발굴·육성 행사인 '슈퍼스타트 데이 2026'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광모(썬) LG 대표가 LG의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ABC(AI, 바이오, 클린테크)는 물론 로봇, 우주산업,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혁신 기술이 한 자리에 모였다.

'슈퍼스타트 데이'는 지난 2018년 LG의 R&D 혁신 기지인 마곡 LG사이언스파크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스타트업 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번 슈퍼스타트 데이에선 다테크 전



'슈퍼스타트 데이 2026' 루키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 창업팀들이 한데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

문 투자·육성 파트너 기관들과 함께 발굴한 41개 스타트업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발표·전시했다. 특히 올해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로봇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대거 늘었다. ▲지난해 CES 혁신상과 APEC Best Award를 수상한 '퀘스타'는 사람의 손동작을 고정밀 피지컬 데이터로 전환해, 로봇이 정교한 조

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모티글로브'를 선보였다. ▲서울대 기계공학·전기정보공학 박사들이 창업한 '로맨티로보틱스'는 종이·박스·테이프 같은 비정형 물체의 변형성을 로봇이 이해하고 정확한 조작을 구현하는 기술을 공개했다.

구광모(썬) LG 대표가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ABC 분야의 다양한 혁신 기술도 발표했다. ▲LG전자의 사내벤처로 시작해 분사한 '신선고'는 소형 AI데이터센터와 스마트팜 등에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 접이식 진공단열재(FVI) 및 모듈형 냉동창고 기술 기반 고효율 쿨링 솔루션을 선보여 주목받았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기 유니콘'으로 선정된 '랩인큐브'는 '25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MOF(금속유기골격체)와 같은 탄소저감 소재를 세계 최초로 공기청정기에 적용해 이목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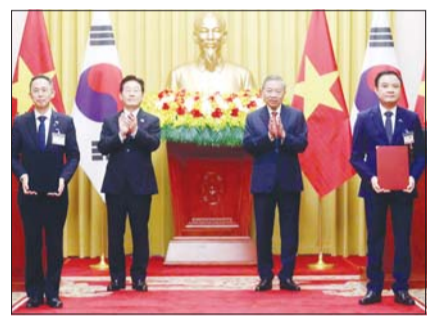
아울러 LG는 각 스타트업이 LG 계열 사·기관·투자자와 실질적 협업을 모색할 수 있도록 1:1 비즈니스 미팅존을 운영했으며, 이날 현장에서는 약 120건에 달하는 투자·협력 미팅이 성사됐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SC제일은행-주금공,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SC제일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왼쪽)과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C제일은행



수출입은행, 베트남 원전 금융협력

한국수출입은행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베트남 국가산업에너지공사(PVN)와 '베트남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가능성 검토에 관한 4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 첫번째)과 레 응옥 손 PVN 회장(오른쪽 첫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동국제약 '인사돌', 국가산업대상 수상

동국제약은 인사돌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 수상식에서 잇몸약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2025년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인사돌은 국내 잇몸약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과 제품 혁신, 공익 캠페인 운영, 그리고 글로벌 인종 성과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국제약



환경산업, 지구의 날 '애탄다' 캠페인

환경산업은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임직원과 함께 '애탄다(환경산업 탄소 다이어트)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경의선숲길 일대에서 걷기와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환경정화 활동 플로깅을 실시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 /환경산업

부음

▲박정자씨 별세, 이동근(아이티센글로벌 부사장)씨 모친상 = 22일,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25일 오전 7시, 장지 서울추모공원-안성 유포피아 추모관. 031-219-6654

소진공, '4차산업 경영' 우수기관 선정

'대한민국 창조경영' 과기부 장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18회 대한민국 창조경영 2026' 시상식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기관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4차 산업 경영'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소진공은 민간 플랫폼 및 기술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진공은 지난 6년간 소상공인의 온

라인 시장 진출 지원과 디지털 기술 보급을 통해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영환경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50대 이상 및 1인 사업장 등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1 방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오프라인 중심의 경영방식을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현장 밀착형 정책을 이어왔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온 공단의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SK스피드메이트, 차량점검으로 고장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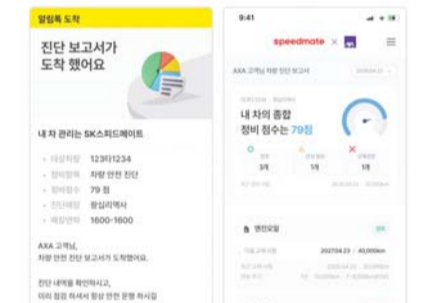
AXA손해보험 가입 고객 대상
자동차 예방정비·안전점검 진행

SK네트웍스의 자동차 관리 서비스 회사 SK스피드메이트가 손해보험사와 함께 자동차 예방정비 및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SK스피드메이트는 AXA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캠페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고객이 AXA손해보험 앱을 통해 안전점검을 신청하고 스피드메이트 매장에 방문해 엔진오일, 배터리, 타이어, 브레이크, 에어컨 필터 총 5개 주요 항목을 점검받으면 진단 결과를 모바일 리포트로 제공받는 서비스다.

AXA손해보험과 협력해 전국 570여 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단순히 이상 여부를 통지하는 기존 차량 점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차량 안전에 직결되는 진단 결과 및 이에 근거한 종합 정비 점수를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별 차량 이용 패턴에 따른 예상 정비 시점 알림 등의 기능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차량 컨디션



SK스피드메이트가 제공하는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모바일 리포트 예시. /SK네트웍스

관리가 가능하다. 기존의 정비 서비스는 차량 고장과 사고 이후 처리에 집중했다면, 이번 서비스는 고객의 차량 점검 결과에 기반해 차량 고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 일정을 가이드하는 의미를 지닌다.

SK스피드메이트는 차량 예방정비·안전점검 캠페인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AXA손해보험으로부터의 문자 수신을 동의한 고객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엔진오일 3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SK스피드메이트 관계자는 "단순 점검을 넘어 데이터 기반 차량 관리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중진공, 상반기 정규직·인턴 102명 채용

내달 7일까지 온라인 접수
최종 합격자, 7월 중 입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상반기 정규직 및 청년인턴 102명을 새로 채용한다.

23일 중진공에 따르면 정규직 채용은 행정 42명, 기술 18명 등 총 60명 규모다. 이 중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보훈 대상자 12명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채용

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 보유자 5명은 별도의 절차로 선발한다.

입사지원은 24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중진공 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필기 시험(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지식평가) ▲1차 및 2차 면접으로 구성되며,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입사한다. /김승호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젊은 창작자와 전통문화 재해석

아모레퍼시픽은 오는 5월 5일까지 대학생 참여 창작 프로그램 '설화프로젝트 시즌3'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설화프로젝트'는 젊은 창작자와 협업해 한국 전통 문화를 동시대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전통의 가치를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주제는 한국 전통 공예 예술 '탈춤'이다. 탈춤은 춤과 음악, 탈, 서사 등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 예술이다. 해학과 풍자, 자유로운 표현을 특징으로 갖춰 현대 방식으로도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퍼포먼스, 영상,

텍스타일, 공예, 공간 연출 등 다양한 방식의 창작물을 선보이게 된다.

참가 대상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개인 단위 지원이 가능하다. 총 16명을 선발해 4인 1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선발된 참가자들은 약 3개월간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작품을 기획·제작하게 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제작비와 활동 지원금이 제공되며, 우수팀에는 별도의 시상이 이뤄진다. 최종 결과물은 오는 8월 설화수 북촌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관계자는 "젊은 창작자들의 시선을 통해 한국 전통 문화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오늘의 날씨

4월 24일(금)
음력: 3월 8일

수도권 날씨
8 ~ 24°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46 | 해질 / 19: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